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7월 2일 (제1208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악에서 떠나라

어떤 성도가 “본래 악인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있다마다.” 나는 답했다. 본시 악인이 있다. 증거가 되는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씩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잠16:4).

왜 굳이 악인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라고 나는 생각한다. ‘너희는 그들을 교훈 삼아 악을 행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다.

시편 1편의 말씀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시1:4~6). 악한 자의 결말이 이렇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던데요?”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 시편 73편의 기자도 하마터면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했다. 왜? 악인들의 행통함을 보고. 악인들은 악을 행해도 모든 일이 잘되는데 경건하게 사는데 힘든 자기를 보자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당신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깨달았다. 그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시73:17~19).

미끄럼을 타면 쏙~하고 잘 나가지만 결국 바닥으로 떨어지듯 그들은 잘 나가는 것 같으나 결국 지옥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다. “너는 악인의 행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잠24:1).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신다. “네 발의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잠4:26~27).

그러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 하셨다(시1:1~3). 악을 따르지 말라.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목사님이 자주 예시하는 마이크, 요즘은 무선마이크가 대세니까 이를 사용하는 우리로서는 그 세세한 기능이나 한계 등을 알아야 할 수 없다. 따라서 만든 업체에서 제공한 매뉴얼을 잘 봐야 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먼저 사용해 본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 아닌가.

“먼저 가본 자의 말을 들어라. 1층에 있는 사람이 10층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나?” 역시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인생 선배들 말에 귀를 기울

이삭과 서자 이스마엘이 다투자 역시 갈라놓습니다. 또한 아내 사라가 죽은 후 얻은 후처 그두라에게서 얻은 자녀들도 자신의 생전에 적자 이삭과 갈라놓습니다. 이는 아예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창25:5~6).

선교여행을 앞두고 사도바울은 일전에 사역에서 이탈했던 마가를 동행시키려는

않으면 갈라서라는 말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나는 가족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갈등을 사전에 막으라는 조언입니다. 아브라함의 지혜를 보세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내 사라와 상의했던가요? 아마 그랬었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혜로운 아브라함은 혼자 그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이처럼 문제나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말이지 부부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통역관을 비롯한 스태프와 서로 잘 맞아야 해외집회도 성공한다

(2006 멕시코 메리다 집회 광경)

여야 하는 까닭이다. 우리 부모는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온 분이다. 먼저 인생의 길을 걸어보았기 때문에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행로의 법칙을 우리보다는 많이 터득하고 계신다. 성경도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욥8:8)라고 하지 않는가?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처세를 말씀하시며 문제나 갈등의 소지를 초기에 제거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셨다.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조카 롯과 함께 길을 나섰다가 땅은 한정되었는데 소유가 늘어나 가족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자 즉시 갈라섭니다. 다툼 것 없이 각자 자기 길을 가자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더해 아브라함은 롯에게 더욱 좋은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적자

바나바와 의견이 맞지 않아 심하게 다투게 되자 서로 갈라서서 각자 선교의 길을 떠났습니다(행15:36~41). 맞지 않는데 굳이 같이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보다 갈등 해결에 힘을 소진하다 보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으면 문제와 갈등을 키우지 말고 갈라서라는 것이고, 소리 나는 바퀴는 빨리 갈아 끼우는 겁니다.

저 역시 목회나 해외선교에서 맞지 않는 사람은 과감히 빼냈습니다. 통역관이든, 스태프이든 한 팀이 되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 맞아도 힘겨운 길인데 적과 싸우기도 전에 전열이 흐트러진다면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 아닙니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며 가야 하는 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했더니 ‘부부도 맞지

거론합니까? 나는 내 제자들에게도 부부의 문제는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는 절대 목사가 해결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키워서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라는 간곡한 조언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전, 먼저 가본 자의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나는 진실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기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가정을 깨라 합니까? 행복하게 잘 살라 하지요. 문제나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그렇지 못하거든 초기에 제거하라는 지혜의 말씀을 전했으니 부디 지혜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KBS스포츠월드)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51:7~15)

큰일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담대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금상태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문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판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 다. 그런데 두 사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되레 공회원들을 책망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들의 명령에 두 사도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행4:19).

그저 고기나 잡는 범인(凡人)인 줄 알았던 그들은 두 사도의 담대함에 몹시 당황하여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을 놓아줍니다.

베드로가 본시 담대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조차 스승을 모른다고 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내 삶과 신앙의 암이다

제가 해외집회에 나가면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사요.”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오줌을 지릴 뻔했다고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찌려고 저러시나.’ 하며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9년 세월, 늘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해외집회를 가면 온갖 협박, 위협, 비난이 쏟아집니다. 호텔을 폭파하겠다고, 비행기에서 내리면 총으로 쏘겠다고...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인천교회에 강패가 들어와 기물을 파손하고 협박했을 때도 저는, “너 같은 것을 무서워했다면 목사 안 했어.” 하고 책상의 화병을 집어던지며 그들에게 다가갔더니 그들이 무릎을 꿇았던 일도 있습니다.

대전 전도집회의 일도 생각나네요. 집회 장소로 기독교연합회관을 계약했는데, 갑자기 집회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계약 파기에 따른 이익을 제기했더니 그들이, “집회 장소는 쓰쇼. 그러나 전기는 끊겠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베니스의 상인도 못 읽어봤는가? 전기를 끊는 건 좋다. 그러나 불은 들어오게 해라.”라고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응수했더니 그들은 군소리 못하고 장소를 내주었습니다. 개가 짖을 때 두려워하면 물립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찌려보면 꼬리를 내

리는 법입니다.

9월에 있을 페루집회의 현 상황이 그런가 봅니다. 여기저기서 협박이 있나 봅니다. 집회를 준비하는 문갑선 선교사가 그 상황에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 설교를 듣고는 달라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맞붙어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울 것 없다는 것을 이번 집회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 하리라” (잠29:25).

하나님의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일이 시작되면 마귀도 동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훼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 같이 썩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 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사51:7~8).

다니엘은 사람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떨어졌으나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아나와 더욱 명성이 높아졌고, 도비야와 산발랏이 훼방했지만 느헤미야는 보란 듯이 52일 만에 예루살렘성을 수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히13:6).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온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함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

이나 칼인들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 풍량이 인다고 두려워하는 제자 꼴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담대한 자를 쓰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전들은 하나같이 다 담대한 자들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직전까지 도망치지 않았던 이삭, 환도뼈가 부러져도 축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줄 수 없었던 야곱, 후환이 있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 정탐꾼

을 숨겨 준 라합...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처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할 뿐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해야 성공합니다. 정주영 현대 회장이 어떻게 조선소를 건립했을까요? 영국 선박 컨설턴트 기업인 A&P 애플도어사의 롱바텀 회장에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새겨진 500원짜리 지폐를 내놓으며, “당신네 영국의 조선(造船) 역사가 1800년대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300년 앞선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물리쳤소. 단지 산업화가 늦어졌을 뿐, 우리는 조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소.”라고 하니 롱바텀 회장은 그의 담대함에 탄복하여 은행에 추천서를 써주었던 것입니다.

1998년, LPGA US오픈 연장전에서 박세리 선수가 연못에 빠진 공을 쳐올리기 위해 맨발로 물에 들어가 우승까지 일궈냈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녀는 담대하

게 양말을 벗고는 연못에 들어가 공을 쳐냈고, 마침내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세계는 그의 담대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열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 선생, 3.1만세운동을 전개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 에디슨을 비롯한 발명가들, 허영호 같은 에베레스트 등정가, 남극점 탐험가들... 한 시대의 맥을 그은 사람들, 큰일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현대인의 공통 문제입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가 두려우면 사업하지 말고, 이혼이 두려우면 결혼하지 말라. 외국어가 두렵다면 유학이나 이민 가지 말고, 물이 두려우면 수영할 생각 아예 말아라.” 두려워하면 보이던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인류 최대의 적이다

“담대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 뻘이 있으면 안 두렵겠지요? 뻘 중의 뻘,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43:1).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자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고후1:21~22), 당신의 것을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처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옷자락 하나 그슬리지 않은 것처럼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사43:2~3), 기드온의 군대 앞에서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듯 하게 하실 것입니다(신28:7).

왜냐?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용을 찌르신 이이시며(사51:9), 바다를 말리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일 뿐 아니라(사51:10), 그 물결로 홍용케 하시는(사51:15),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그래도 두렵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노력하는 자는 이길 수 없다

이번 역(驛)은 예수역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청년부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막 결혼한 청년이 이런 영상을 올렸다. 결혼을 해보니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집이 가만히 있다고 깨끗해지지 않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물질적인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모님의 그늘이 이렇게까지 큰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며, 자신이 당장은 부모님의 그늘이 될 수 없지만 성장하고 성숙하여 부모님의 그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맞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심은 만큼 열매 맺고,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다. 첫순가락에 배부르지 않고, 삼 한번 뱉다고, 벽돌 한 장 올렸다고 건물이 되지 않는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인 것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 최선이 최고의 작품을 만든다.

유튜브에서 성경에 대한 글을 올리고 있는 한 청년이 상담을 왔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몇 번이나 읽었고, 관련된 책은 얼마나 보았고, 충분한 기도는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그 만큼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에게 총회장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었다. ‘물건이 좋아야 팔린다. 삼성, 현대도 물건이 좋지 못하면 고객은 바로 돌아서 버린다.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다.’ 그랬더니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기에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영어

를 잘하면 외국 사람을 만나도 자신감이 있지만, 영어를 못하면 외국 사람을 만나면 슬그머니 도망을 친다.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무지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밭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잠19:2).

총회장 목사님은 ‘나에게는 두 친구가 있는데, 노력이라는 친구와 기도라는 친구다. 이 친구들과 한 명의 성도에서 세계교구를 이뤘다.’라고 말씀하신다. 목사님을 보면서 ‘노력하는 자는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배운다.

세상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노력하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다. 신명기 6장 7절에는 ‘집에 앉았을 때 길에 다닐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라’ 하셨다. 이 말씀은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에 열정을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실 것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의지의 결단이며, 의지의 표현, 즉 행동이다. 또한 노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한 노력과 수고와 더불어 신앙과 인격이 성장,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할렐루야!

장영국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모인 방 한 가운데에 나타나셨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못 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셨고,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보내시겠다는 사명도 주셨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시 살아났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졌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그가 바로 도마다.

아주 은혜로운 예배나 집회 참석할 때 보면,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진 것을 볼 수 있다. ‘아, 그 사람이 와서 이 설교를 들었어야 하고, 은혜받았어야 하는데….’ 할 때가 있다. 가만 보면 영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은 항상 은혜받는 자리에 남보다 앞서와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은혜의 현장에 자주 없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그 중요한 순간에 도마는 혼자 인간적인 근심하느라고, 현장에 없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뵈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은 그 현장에 있는가. 옛날에 경건한 청교도들은 성도

들의 예배와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누가 ‘왜 그렇게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 오셨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자리에 없어서 의심했지만, 뒤늦게나마 두 번째 집회에는 참석했기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다. 성도들의 모임은 성도들과의 교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공동체로 모일 때 주님은 더 강렬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5).

이정금 전도사

지난 24일, 서울예수중심교회 청년부에서는 ‘이번 역은 예수역입니다’라는 작품으로 드라마 예배를 드렸다. 이 작품은 청년부 김경국 형제의 꿈으로 시작된 창작극으로, 영적 세계는 허상이 아니고 실체이며,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경각심을 주기에 족했다. 드라마의 내용은 이러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게 된 ‘온유’라는 청년이 청년부 예배로 향하던 중 꾸게 된 꿈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믿음, 소망, 사랑역을 지나 ‘예수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사탄은 학업, 질병, 취업, 가정 등의 문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좌절, 낙망, 포기하게 만들지만, 마침내 기도함으로 ‘예수역’을 향해 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예수중심교회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 앞에도 수많은 현존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처럼 사탄은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 생명의 말씀 ::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2018년 12월 1일, 문산교회로 발령을 받았다. 미물 것도 없이 즉시 순종하고 갔는데, 80평이 훨씬 넘는 건물에 성전이 넓게 잘 꾸며져 있었다. 교회 소유의 건물이라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전철역 인근에 주차도 가능하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건물이었다. 손떨 것이 하나도 없었다. 누가 봐도 좋은 성전이었지만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찬고가 높고, LED 화면으로 총회장 목사님의 영상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입니다.”

작정예물을 드리고 작정기도를 했다. 21일 작정기도회를 마친 바로 그 주 토요일에 한 건물을 보게 되었다. 형편과 처지에 맞는 건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찾고 원하던 성전이였다. 그다음 날 주일 저녁에 행정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다. 다른 내용은 없었다. 찬고가 6.5m인 성전이라는 설명만 드렸다. 총회장 목사님께 보고를 부탁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허락이 떨어졌다. 월요일, 성전을 계약하고, 화요일, 특공대 박인덕 목사님이 오셔서 회의를 했다. 그리고 바로 공사에 들어갔다. 특공

이번 드라마 예배는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나는 현존하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있지 않은가? 사탄의 미혹에 순순히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드라마 내용과 같이 영적 세계는 실체하고, 악의 세력들은 현존하는 문제로 우리를 미혹하고 조롱하고 괴롭힌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의 모든 미혹에 맞서 싸울 무기가 있다. 바로 ‘기도’이다!

우리는 2023년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자’라는 표어로 벌써 반년을 달려왔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는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해주셨다.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 부동의 자산이요, 인생의 마스터키다.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여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예수중심교인들이 되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5:8).

청년부 장세라

대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수고,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 속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다. 발령받고 성전을 놓고 기도한 지 1년 3개월 만에 하나님은 찬고가 6.5m인 지금의 문산교회 성전을 주셨다. 많은 성도들이 앉아서 시야를 전혀 가리지 않고, LED 화면으로 생생하게 총회장 목사님의 영상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형편과 처지에 맞는 삶을 살 것이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했다.

나는 깨달았다. 소경 바디매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외친 것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하신 말씀을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소경 바디매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물으신다.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래서 나는 매년 전도 인원의 분명한 숫자를 놓고 오늘도 기도한다.

장순천 목사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참된 깨달음 ::

오는 말이 곱지 않더라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죠. 반대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와 집니다. 곱지 않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고운 말을 건네기 싫어지죠. 몇 주 전 토요일 오후에도 그랬습니다. 서울 시청에서 광화문을 지나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무전기로 동료와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그날 오후에 시작된 시위가 화근인 것 같았습니다. 시위 때문에 도로 한쪽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운수 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처할 준비를 못하셨던 거죠. 기사님은 계속해서 씩씩거리며 역정을 냈습니다.

잠시 후 기사님의 짜증은 어느 승객에게로 튀었습니다. 손잡이를 똑바로 잡으라고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몇 분 뒤 정류장에서 버스가 멈췄고 하차할 승객이 내리고 막 출발하려던 찰나에 깜빡하고 내리지 못한 승객이 다급히 기사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님은 왜 미리미리 내릴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고 번개같이 호통쳤습니다.

저는 슬슬 화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야단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왜 본인의 짜증을 승객에게 풀지?’ 싶기도 하고요. 기사님이 한 번만 더 애먼 승객에게 큰소리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나라 다짐했어요. 똑같이 큰소리로 “기사님! 그만 좀 하세요!”라고 신경질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말은 안 해도 한마음 일 거라 확신했어요. 그때, 기사님 포레의 중년 아저씨 두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버스 기사님의 흥을 보려나 보다 했는데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사님이 오늘 기분 많이 안 좋으시네~”, “그럴 만도 하시지~ 뭔가 회사랑 연락이 잘못됐었나 봐~”, “아무렴 이런 날 운전하는 거 너무 고생스럽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기사님의 고된 하루가 헤아려지면서 제 마음속의 화도 사그라들더라고요. 버스에 내려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인데 왜 저분들처럼 상대방의 곱지 않은 말을 고운 말로 감싸주는 넉넉하고 선한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 반성하고 후회했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언니와 점심을 먹으러 코엑스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내부가 한산해 손님 둘이 4인석에 앉아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짐이 있어서 언니와 4인석에 앉으려고 하는데 종업원이 통명스럽게 거기 말고 저기 앉으라며 2인석을 가리켰습니다. 무척 좁은 자리였어요. 순간 불쾌했습니다. “저 손님도 둘이서 넓은 데 앉았는데 왜 우린 못 앉게 하는 거야!”라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심 언니가 맞장구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곧 불발 시간이라 그런 걸 거야~”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부끄러워졌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상대방을 헤아리는 넉넉한 마음과 선한 말을 갖고 싶습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고 싶습니다.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하고 싶습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편 141편 3절).

신은혜
dopal0203@naver.com

삶의 우선순위

아이들이 등교하는 아침이면 아내와 아이들과의 소소한 언쟁이 벌어진다. 일단 아이들은 늦잠을 자서 깨우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면 학교에 가기도 바쁘다. 이불, 옷, 쓰레기가 책상, 방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져 있어 치우라고 말하면, 잔소리 듣기가 싫어 치운다고 대답만 하고 그냥 학교에 간다. 참다못해 하교한 아이에게 아내가 한마디 하면 어차피 밤에 잘 건데 왜 이불을 개야 하냐고 본심을 말한다. 원래 안 할 생각이었던 거다. 그러면 그렇게 말대답하는 게 꽤 씁하니 태도 문제로 넘어가서 2차전이 벌어진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혼나면서도 아이는 고칠 생각이 없다. 또 혼나면 듣는척하다가 다시 원래의 행동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가 채 걸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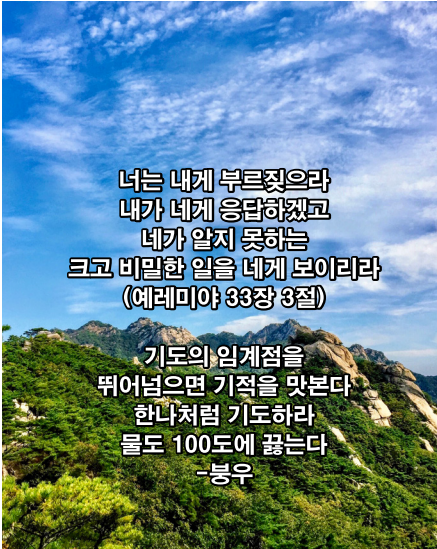
왜 이런 언쟁은 끝이 없을까? 그것은 아이들과 부모의 생각과 행동의 우선순위가 달라서 일 것이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아침에 늦잠 자는 것은 정당하고, 학교에 가기 전 몇 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 시간이 남으면 정리를 하고, 안되면 그냥 가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내 입장에서는 게으름과 부모에 대한 존중이 없는 아이를 훈육해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우선순위가기 때문에 매일 힘들지만, 잔소리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엄마의 우선순위를 만족시켜 준다면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며,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할 텐데 말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같을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든 주신다고 했는데,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 아등바등 바쁘게 살다 보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매일 똑같은 일로 야단만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자녀들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것을 다짐해 본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송명국 집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기적을 맞본다
한나처럼 기도하라
물도 100도에 끓는다
-봉우

2023 청소년 수련회

중고등부: 7월 24일(월)~26일(수)
대학청년부: 7월 27일(목)~29일(토)
문의: 02. 533. 9191

Good News

빨리 달린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와 반대 방향을 향해 달린다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지로부터 더 멀어질 것입니다. 자동차도 길이 있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길이 있으며, 들짐승들도 길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마땅히 행할 길이 있습니다. 옛 선진들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

서서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무작정 빨리 달리는 것보다 먼저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천국과 지옥이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더디게 보이지만 정도를 걷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정도(正道)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만일 길을 잘못 들었다면 유턴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여름철 배 아프고 설사하는 감기에는?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여름철 음식이 상하거나 위생상 좋지 않은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장염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주된 증상으로는 춥고 열이 나기도 하고 입맛이 떨어지고 구토를 하거나 두통과 피로감이 있으며 명치부위가 딱 차고 단단하며 복부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염감기에는 광항정기산이라는 처방이 좋은데, 약국에서는 콜론정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광항정기산에 들어있는 광항, 소엽, 반하, 후박, 길경(도라지), 진피(귤껍질), 감초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에어컨을 많이 켜고 찬음식을 많이 먹는 여름철에 배가 차가워지면서 설사하면서 감기기운이 들 때 사용하는 처방으로 꼭 갖춰 놓아야 할 가정 상비약으로 사용될

약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증상이 없는 몸살감기에는 갈근탕, 목이 아플때는 은교산, 기침감기 및 종합감기에는 형방패독산 등이 사용되는데 배가 차서 아플때는 위의 약들이 효과가 없습니다. 이때는 광항정기산으로 뱃속에 냉기를 제거해야만 장이 따뜻해지면서 배도 아프지 않고 감기기운도 해결이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염 증상으로 설사를 자주 보일 때도 효과가 좋으며 속이 차면서 만성적으로 소화 안될 때도 소화제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는 잘 토하고 비위가 예민하여 밤도 잘 안먹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며, 체질적으로는 배가 조금은 선선하거나 차가운 체질의 사람들에게 잘 맞으나 속이 불편할 때는 체질에

관계없이 도움이 됩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암환자들 사이에서는 내장 체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상체온이 36.5도인데 장기가 차가워서 35도가 되면 암이 걸리기 쉬운 환경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암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피부체온은 높으나 장기의 체온은 낮다고 합니다. 체온을 1도 높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면역기능이 극대화되어 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들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장기의 체온이 떨어질 때 운동을 통해서 몸에 열을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속의 체온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약 중에 하나가 광항정기산입니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